

## 일본해는 세계가 인정한 유일한 호칭

1992년 제6회 국제연합 지명표준화 회의 이래, 한일 간에는 일본해 호칭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그 동안 일본정부는 일관하게 “일본해는 세계가 인정한 유일한 호칭”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것은 한국정부가 주장한 ‘동해’가 조선반도 연안부분을 가리킨 것이었다는 점. 따라서 국제수로(水路)기관의 『대양과 바다의 경계』에서 정한 일본해 해역과는 중복되지 않은 만큼, 일본해를 대신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측에서는 여전히 ‘일본해’에 의의를 주장하며, 동해 호칭을 고집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측의 사정이 있다. 1954년 이후, 일본령인 다케시마(한국의 독도)를 계속 점령해 온 한국정부가 영토문제와 일본해 호칭문제를 결부시켜, 이를 외교 현안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측이 동해를 정당화하려는 이유로, 일본해 안에 다케시마(독도)가 있다면, 일본 영해 안에 독도가 있다고 하는 모순적 논리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일본해 호칭을 부정하고, 한국이 2000년간 사용해 온 동해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2000년 전부터 동해가 사용되어 왔다는 논거가, 『삼국사기』(「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시조동명성왕조(始祖東明聖王條))에 있는 ‘동해지빈(東海之濱)’이다. 더욱이 한국측에서는 1929년 동해 호칭이 국제수로국(현재, 국제수로기관)의 『대양과 바다의 경계』에 기재되지 않았던 것은, 당시 한국이 일본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동해의 정당성을 주장할 기회를 빼앗겼다고 말하고 있다.

그 후, 한국정부는 동해의 ‘단독표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1997년 국제수로기관 회의 때부터 일본해와 동해의 ‘병기’를 주장하며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증거로 든 『삼국사기』·‘광개토왕비’(414년 건립)·『팔도총도(八道總圖)』·『아국총도(我國總圖)』의 동해<sup>1</sup>는 조선반도 연안부분을 나타내는 동해든, 황해 혹은 동지나해를 의미하는 동해든, 모두가 오늘날 일본해와는 관계없는 동해였다.

### 1. 『아국총도(我國總圖)』의 동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아국총도』의 경우, 조선반도 동쪽에는 확실히 ‘동해’ 표기가 있지만, 조선반도 연안에는 ‘서해’와 ‘남해’ 표기도 있다. ‘서해’는 황해의 일부, ‘남해’는 동지나해 일부에 속하며, 조선반도 연안부를 나타내는 호칭이다. 만일 ‘동해’를 일본해라고 한다면, 황해는 서해로, 동지나해도 남해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지만, 한국측은 그와 같은 요구는 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가 일본해를 문제로 하는 것은, 그곳에 다케시마(독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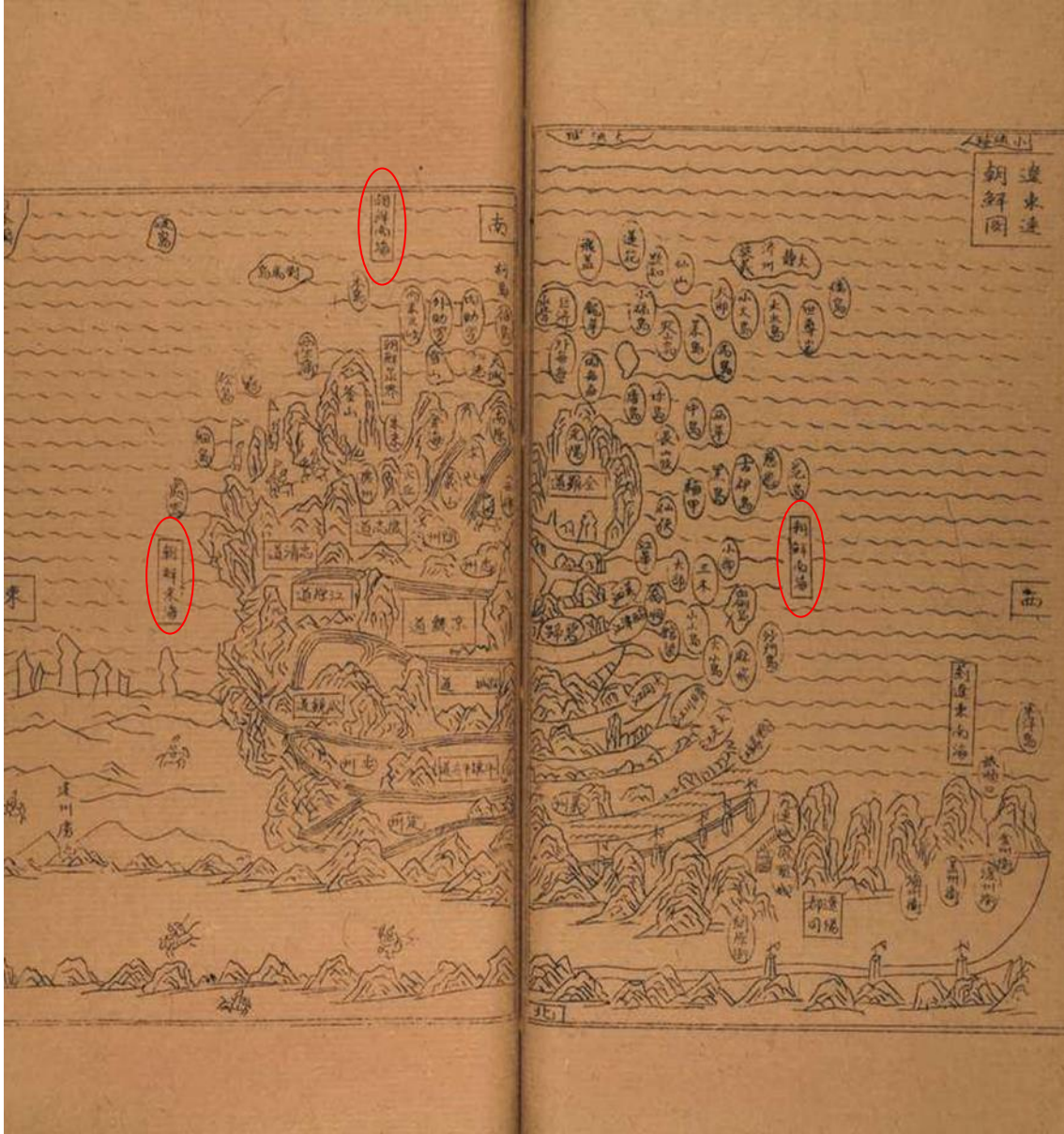
<sup>1</sup>한국외교통상부 견해[http://www.mofa.go.kr/www/wpge/m\\_3838/contents.do](http://www.mofa.go.kr/www/wpge/m_3838/contents.do). 참조.



『아국총도(我国總圖)』

게다가 『아국총도』에 표시된 동해가 조선반도 연안부의 호칭이었던 사실은, 명나라 왕재진(王在晉)이 편찬한 『해방찬요(海防纂要)』 (「요동연조선도(遼東連朝鮮圖)」)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기에는 조선반도 서해를 ‘조선서해’로 하고 있으며, 남해는 ‘조선남해’, 동해를 ‘조선동해’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선 동해, 조선 서해를 의미하며, 조선반도 연해로 표기한 것이다. 그것을 한국정부가 ‘조선동해’와

마찬가지로 『아국총도』에 표시된 동해를 일본해로 한 것은 자의적 해석이다



『해방찬요(海防纂要)』 (「요동연조선도(遼東連朝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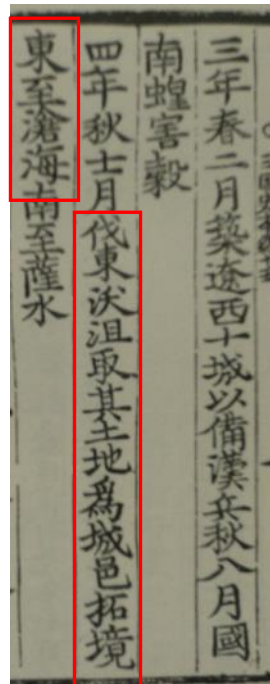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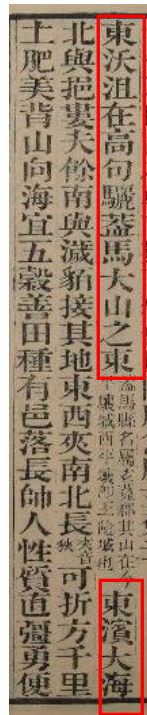
## 2. 『삼국사기』의 ‘동해지빈(東海之濱)’에 대해서

한국정부에 따른 문헌의 자의적 해석은 2000년 전부터 동해 호칭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삼국사기』(「고구려본기」)의 ‘동해지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정부가 고구려를 한국 역사의 일부로 의심할 여지는 없지만,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보고 있다. 그럴 경우, ‘동해지빈’에 표시된 동해는 중국 동해가 되어, 동해는 황해 혹은 동지나해가 된다.

그렇다면 ‘동해지빈’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동해지빈’은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이 건국한 땅으로 영두해 둔 장소이다. 그렇게 ‘동해’는 고구려

건국 당시의 영토를 감안한다면, 대체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고구려에 관련된 기록을 『한서(漢書)』의 「지리지(地理志)」, 『후한서(後漢書)』의 「지리지(地理志), 『삼국지(三國志)』의 「위지동의전(魏志東夷傳)」<sup>ii</sup> 등에서 확인하면, 고구려는 압록강 상류 부근에 건국되었으며, 그 동쪽에는 동옥저가 있었다. 즉 건국 때 고구려는 일본해와 접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의하면, 고구려가 동옥저를 공격하여 동쪽으로 영토를 확대하여, 일본해에 이른 것은 동명성왕부터 6 대째인 태조대왕 때<sup>iii</sup>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가 2000 년 전부터 사용했다는 『삼국사기』의 ‘동해’는 일본해가 아니었던 것이다.



「위지동의전(魏志東夷傳)」 동옥저전(東沃沮傳)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sup>ii</sup> 『삼국지』의 「위지동의전」(고구려전(高句麗傳))와 『후한서』의 「동의전(東夷傳)」에는,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으로 천리가 떨어져 있고, 남쪽으로는 조선(朝鮮), 예맥(濊貊), 동쪽으로는 옥저(沃沮), 북쪽으로는 부여(夫餘)와 접하고 있다(高句麗, 在遼東之東千里, 南與朝鮮、濊貊, 東與沃沮, 北與夫餘接)”로 되어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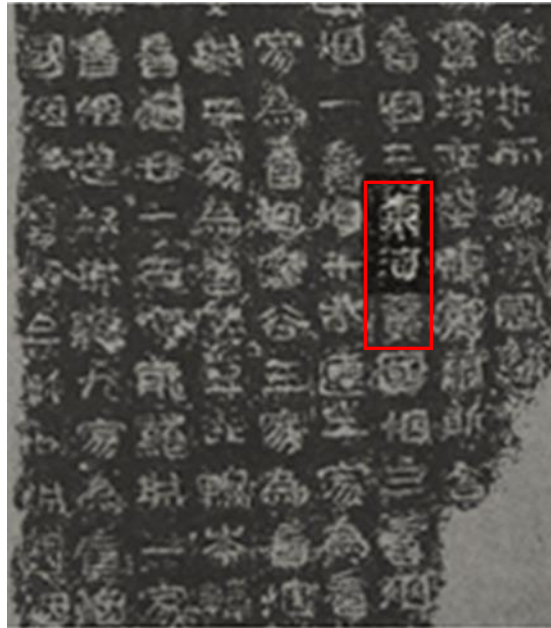
『삼국지』의 「위지동의전」(동옥저전(東沃沮傳))에는 “동옥저(東沃沮)는 고구려의 개마대산(蓋馬大山) 동쪽에 있으며, 동쪽에 큰 바다가 달아있다(東沃沮, 在高句麗蓋馬大山之東, 東濱大海)”고 되어 있다.

<sup>iii</sup> 『삼국사기』의 「고구려본기」에, 태조대왕 4년 가을 7월. “동옥저를 정벌하여 그 땅을 성읍으로 만들고, 국경을 개척하여 동쪽으로는 푸른 바다에 이른다(伐東沃沮, 取其土地為城邑, 拓境, 東至滄海)”고 되어 있다.

### 3. ‘광개토왕비’의 ‘동해고(東海賈)’에 대해서

그렇다면, 414 년에 건립된 ‘광개토왕비’의 ‘동해’는 어떠할까? ‘광개토왕비’는 고구려 광개토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 아들인 장수왕이 건립한 것으로, 거기에는 광개토왕의 왕릉을 관리하는 수요인(守墓人)과 그 호수(戶數)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그 수요인의 하나가 ‘동해고’<sup>iv</sup>이다. 한국정부는 ‘동해고’의 ‘동해’에 주목하여, 그것을 일본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동해고’의 고(賈)는 장사라는 뜻으로, 동해 지방의 상인과 같은 의미이다. 그러한 동해가 어느 동해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동해고’를 일본해로 하는 것은 건강부회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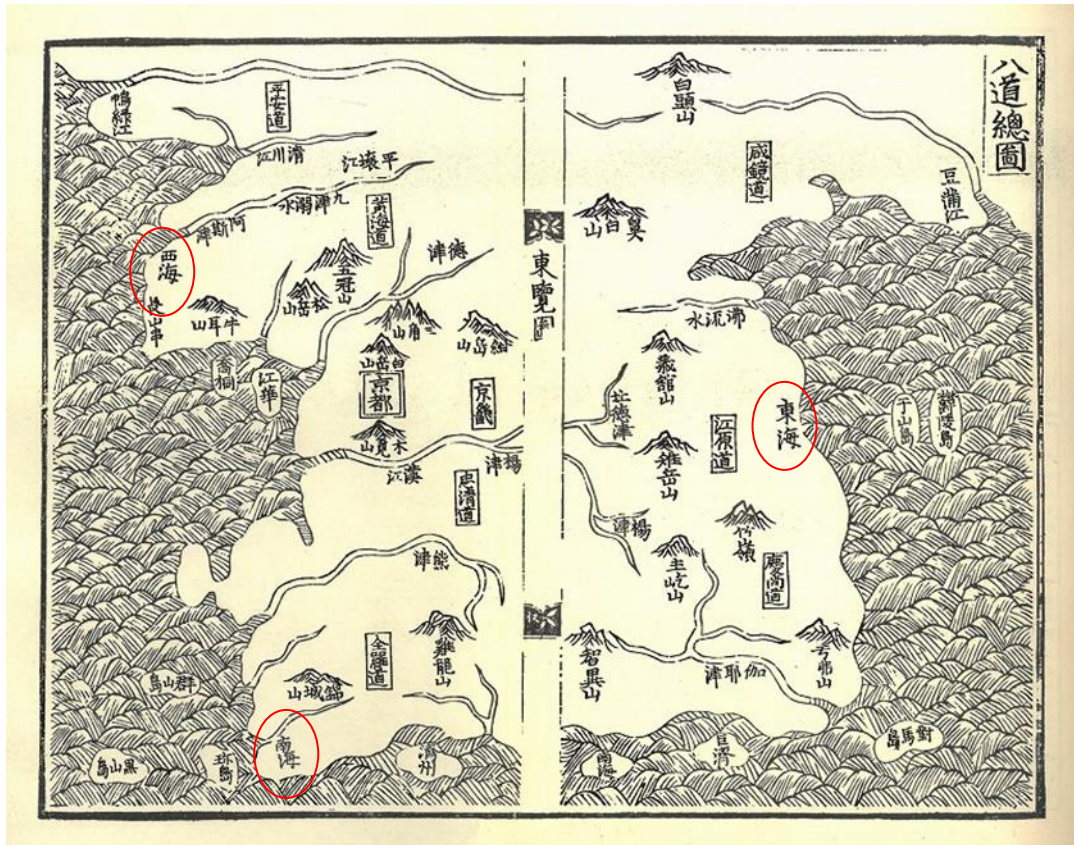


‘광개토왕비’

### 4. 『팔도총도(八道總圖)』의 동해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팔도총도』에 기재된 동해를 일본해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건강부회한 말이다. 『팔도총도』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된 조선전도로, 그곳에는 한강이나 압록강 등의 대천(大川)과 함께, 내륙부에 동해나 남해, 서해 표기가 쓰여져 있다. 그리고 여기 동해를 한국정부는 일본해로 해석했지만, 그것은 근거 없는 억측이다. 그 예로 『동국여지승람』의 발문에는 『팔도총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sup>iv</sup>한국정부가 근거로 든 ‘광개토왕비’의 ‘동해’ 부분은, 본래 “동해고는 국연(國烟, 왕릉을 수호하는 백성)이 3 가이고 간연(看烟, 수요인의연호)이 5 가이다(東海賈國烟三看烟五)”고 되어 있다.



『팔도총도(八道總圖)』



‘동해신묘(東海神廟)’



‘남해신묘’

첫머리의 총도(總圖)는, 즉 사전(祀典, 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예전)을 올리는 곳인 악독(嶽瀆, 나라에서 국전(國典)으로 제사지내는 큰 산과 큰 강) 및 명산(名山)과 대천(大川)을 기록한다.

『팔도총도』에 그려진 대천이나 동해는, 『사전(祀典)』(고려 및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는 각종 제사에 관한 규범이나 규정)에서 정해진 국가제사의 대상이 된 장소를 표시한 것이다. 사실, 『팔도총도』에 표시된 동해는

『동국여지승람』(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條))에 기재된 ‘동해신사(東海神祠, 고려, 조선시대 강원도 양양(襄陽) 동쪽에 있던 신사)’가 설치되어 있던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 그 ‘동해신사’는 최근 사진과 같이 ‘동해신묘(東海神廟)’로 재건되었고, 남해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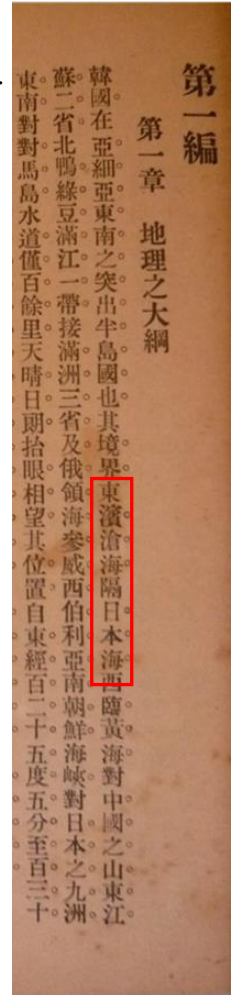
‘남해신묘’로 재건되었다. 『팔도총도』의 동해는 『동국여지승람』의 발문에서 명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제사를 행한 ‘동해신사’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동해신묘’를 일본해로 할 수는 없다. 【사진】 재건된 ‘동해신묘’

게다가 동해의 범위에 관해서는 『동국여지승람』의 발문에서, “팔도의 각도(各圖)는 주(州)와 현(縣)의 진산(鎭山)과 그 사지사도(四至四到)만을 기록했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해에 면한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의 행정구역을 그린 지도에는 ‘사지사도’를 나타내어, 인접하는 지역을 명기하게 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지도의 외곽에는, ‘동저대해(東抵大海)’ (동쪽 대해(大海)에 이른다)라는 표기가 되어 있다.



【사진】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강원도’, 우측 중단에 ‘東抵大海’라고 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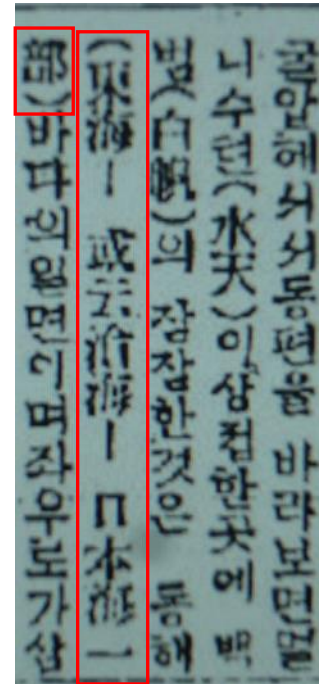


『한국통사(韓國痛史)』 (1915)

이것은 당시 연해와 구별하여 외양(外洋)을 대해로 인식했기  
 때문에, 연해와 외양을 나눈 것은 『동국여지승람』이 명나라  
 때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의 편찬방침에 준거해서  
 편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해와 외양을 구별하는 전통은  
 근대에도 이어져, 박은식의 『한국통사(韓國痛史)』(1915년 간  
 행)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다.

“한국은 아시아의 동남쪽에 돌출된 반도국이다. 그 경계는  
 동쪽으로 창해(蒼海)에 따라 일본해를 사이에 두고, 서쪽으로  
 황해에 임하며 중국의 산둥(山東) 장쑤(江蘇) 이성(二省)과  
 마주한다”

이것은 국제수로국(당시)에서 해양 명칭을 정해지기 14년 전이다. 당시  
 조선반도에서는 연해를 창해로 하고, 외양을 일본해로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1926년 7월 1일부의 『동아일보』가 ‘동해 - 달리 말해 창해 -  
 일본해의 일부’라고 보도한 것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정부는 1929년 당시  
 일본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던 한국이 동해를 주장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본해가 『대양과 바다의 경계』에 등록되었을 당시 조선반도에는  
 동해를 조선반도의 연해부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한 동해가  
 일본해로 된 것은 전후(戰後)가 되고 나서부터이다. 1946년 6월 15일 부의  
 『동아일보』에는 “동해인가? 일본해인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  
 이것은 일본해를 동해로 해야 한다고 하는 논의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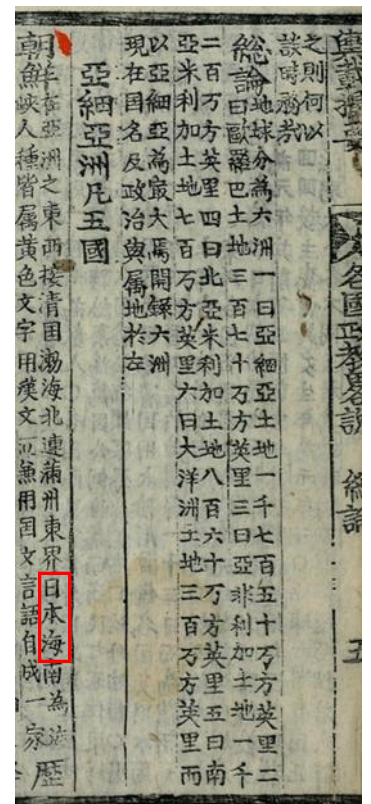


1926년 7월 1일부의 「동아일보」

5. 19세기 후반, 조선반도에서도 일본해 호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정부는 동해 호칭을 2000년 전부터 사용했다고 하여,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해를 동해로 호칭하게 된  
 것은 20세기 중 반이 되고 나서이다.

한국의 애국자인 박은식도 『한국통사』 중에서, 일본해와 창해는 구별했다.  
 그것은 19세기 후반부터 조선반도에서도 일본해 호칭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896년에 간행된 『여재촬요(輿載撮要)』에서, 조선은 “아시아  
 동쪽에 있다. 서쪽으로 청나라 발해에 접한다. 북쪽은 만주로 이어지고,  
 동쪽은 일본해를 경계로 한다”고 했으며, 대한제국 때 현채(玄采)가  
 역집(訳輯) 편찬한 『대한지지(大韓地誌)』(1899년 간행)에서도 “동쪽은  
 일본해를 경계로 하고, 서쪽은 황해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여재촬요(輿載撮要)」(1896)

한국정부가 일본해 호칭을 동해로 바꾸도록 요구할 때, 동해로 바꾸어야  
 할 근거로서 일본에 의한 식민지 통치를 이유로, 일본해의 부당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일본해 호칭은 일본의 독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1876년(메이지 9년), 오지리 히데카쓰(大後秀勝)가  
 작성한 『대일본해육전도연접조선화태(大日本海陸全圖聯接朝鮮樺太)』에  
 서도 ‘일본해/JAPAN SEA’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그것은 영국 해도를 기준으  
 로 작성했기 때문이다. 그 후 『환영주로지(寰瀛水路誌)』(1883년 간행),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1894년 간행)도 영국의 수로지(水路誌)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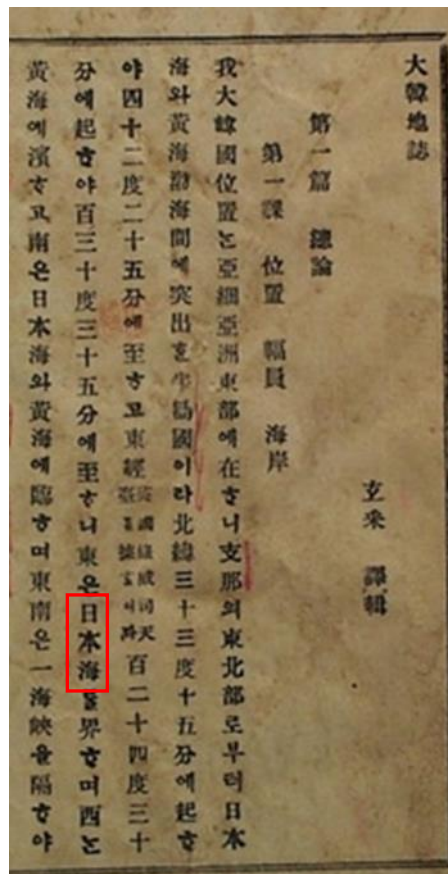


해도 등을 참고로 편찬되어, 일본해 호칭을 답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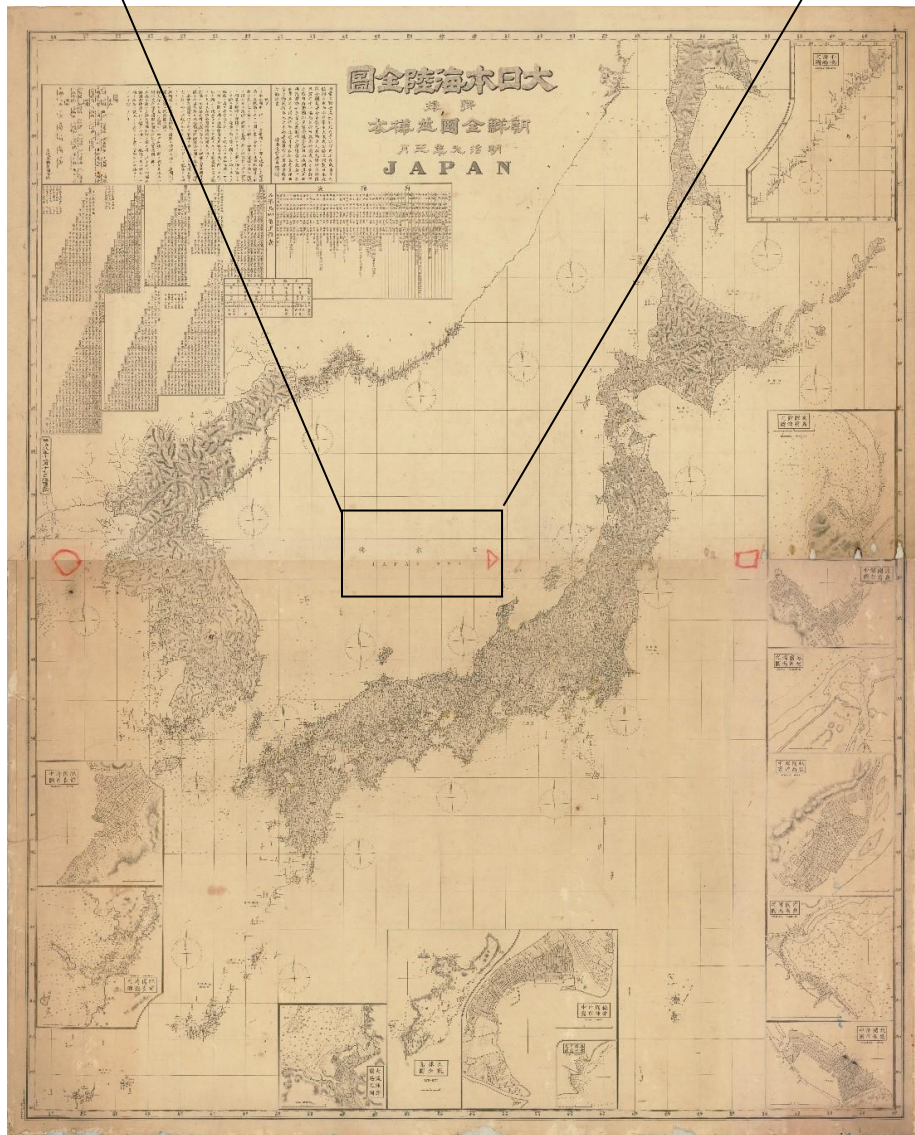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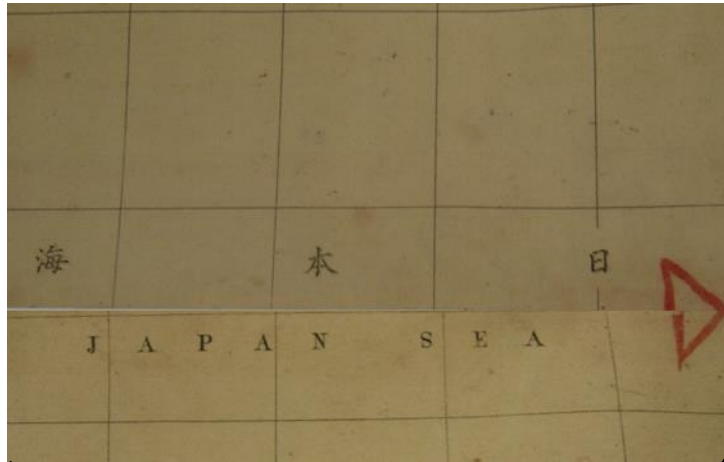
일본정부가 “일본해는 세계가 인정한 유일한 호칭”이라고 한 것은, 이와 같은 역사를 근거로 한 것이다. 한국측이 강조한 일본의 식민통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누차 언급해 온 바와 같이, 한국정부가 일본해 호칭을 문제시하고, 그 증거로 든 동해는 조선반도의 연해부 아니면 중국 동해였다. 그렇기에 일본해를 동해라고 단독 표기한 적도,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한 적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에 기대하고 싶은 바는, 역사를 날조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위가 국제사회를 혼란시키는 원흉이 된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대한지지(大韓地誌)』 (1899)



『대일본해육전도연접조선화태(大日本海陸全圖聯接朝鮮樺太)』